



사진 1



사진 2

## 삼국시대-백제 무령왕릉 출토 등잔

1971년 7월, 세기의 발굴현장인 백제 무령왕릉(武寧王陵)에서 6개의 잔(盞)이 나왔다. 하나는 바닥에서 흑유제 반구병과 함께 수습되었고, 나머지 5개는 무덤 내 벽면을 밝힌 감실(龕室) 안에 놓여 있었다. 감실 안 잔에는 타다 남은 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무덤 축조 당시 실제 불을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망자(亡者)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것인지 무덤 내 공기를 없애 진공상태에서 부장품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랬던 건지 보다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4개의 잔에서는 눈으로도 확인이 되는 거무스름한 잔류물이 남아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는 그윽음에 타다 남은 심지까지 확인되었다. 이들 잔류물을 분석해본 결과 일부 잔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또 일부에서는 동물성 기름이 혼용되어 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식물성 기름은 유채(油菜)기름과 들기름이 쓰였으며, 동물성 기름은 사슴기름과 같은 지방성분이 검출되었다. 잔의 높이는 4.3~5.4cm, 입지름 8.5~9cm, 굽지름 3.4~3.7cm 이내의 크기로서 조선시대 일반적인 증지형 등잔의 형태와 별 차이가 없다.

6개의 잔은 모양이나 태토(胎土), 유약(釉藥) 등이 모두 같은 것으로 보아 한 가마에서 구워낸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것이라기보다는 청자를 구워내던 중국 남조의 월주요(越州窯) 계통의 가마에서 태토와 유약만 달리 하여 청자와 함께 구워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누런 빛깔에 은근한 백색이 배어나와 지금까지 백자로 분류해 왔지만, 이 잔을 백자라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대개 백자의 경우 유리질(琉璃質)의 흰색 태토에 투명한 유약을 입혀 1,28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자기를 말하는데, 이 유물들은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백자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도자기 역사에 있어 세계 최초로 공인된 백자는 중국 하남성에서 발견된 6세기 후반의 유물인데, 무령왕릉 잔들은 그 보다 반세기 앞서는

사진1 무령왕릉 발굴 당시 송산리 고분군의 원경 (1971년) 국립공주박물관, 《武寧王陵》출토 유물 분석 보고서(II), 2006, 345쪽.

사진2 무령왕릉 발견 때 현실 벽의 등감실(燈龕室) 국립공주박물관 편저, 《국립공주박물관》무령왕릉, 1998, 11쪽.



사진 3



사진 4



사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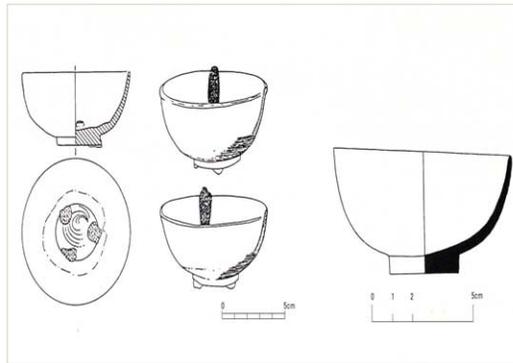


사진 6

결과를 가져온다. 즉, 무령왕릉 출토 유물이 세계 최초의 백자로 공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생산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청자의 변종으로 받아들이면서도 30여 년 동안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청자의 변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이 유물을 소장한 국립공주박물관 측에서도 자기의 성분분석 결과 청자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여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박물관 측에서는 ‘일단 청자의 변종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서 무령왕릉 출토 잔을 두고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쟁은 결국 동북아 고대사 연구에서 무령왕릉이 갖는 중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당시 국제적 교류에 있어서 백제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하겠다. KEA

사진 및 자료 / 국립공주박물관 편저,《국립공주박물관》무령왕릉, 1998.  
국립공주박물관,《武寧王陵》출토 유물 분석 보고서(II), 2006.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3 무령왕릉 현실 복벽 세부 국립공주박물관 편저,《국립공주박물관》무령왕릉, 1998, 70쪽.  
사진4 무령왕릉 출토 6개의 잔(盞) 국립공주박물관 편저,《국립공주박물관》무령왕릉, 1998, 54쪽.  
사진5 무령왕릉 출토 벽감(壁龕) 등잔 국립공주박물관,《武寧王陵》출토 유물 분석 보고서(II), 2006, 200쪽.  
사진6 등잔의 실측도(實測圖) 국립공주박물관,《武寧王陵》출토 유물 분석 보고서(II), 2006, 198쪽.